



외국인의 중국 증시 투자한도 확대

이소양 연구원

■ 11월 13일 중국증권감독관리위원회(CSRC) 주석 귀수칭(郭樹清)은 위안화 적격 해외투자기관(RQFII)의 투자한도를 기존의 700억 위안에서 2,700억 위안까지 확대한다고 발표함.

- 2011년 말 RQFII(RMB Qualified Foreign Institutional Investors)¹⁾ 도입 당시 투자한도는 200억 위안이었으나 지난 4월 700억 위안까지 확대된 바와 같이 투자한도를 지속적으로 확대한다는 방침임.
- 또한, 적격 해외투자기관(QFII: Qualified Foreign Institutional Investors)²⁾의 투자한도 및 기관별 투자한도 확대는 검토 중이라고 표명함.
 - QFII의 투자한도는 지난 4월에 초기의 300억 달러에서 800억 달러까지 이미 확대되었으나 이번에는 네 배로 더 인상되며 기관별 투자한도는 기존의 10억 달러에서 50억 달러로 확대될 계획임.
- 한편, 해외투자기관의 중국 증시에 대한 투자를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세제(稅制) 개편 및 해외 송금 시간 단축 등의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힘.

■ 전문가들은 이번 외국인 투자한도 확대를 중국 자본시장 개방의 일환으로 위안화 국제화를 추진하는 조치라고 평가함.

- 이번 조치로 위안화의 국제결제수단으로서의 기능은 점차 강화될 것으로 분석됨.
- 한편, 외국인의 중국 증시에 대한 투자한도 상향조치는 중국 주식시장 부양을 위한 조치라는 분석도 있음.
 - 중국 상하이종합지수는 지난해 21.7% 이상 폭락한데 이어 올해는 현재까지 7% 하락했음.

(FT, 11/12, 신량망, 11/13 등)

1) RQFII는 위안화로 중국 증시에 직접 투자할 수 있도록 중국 당국으로부터 승인받은 해외투자기관.

2) QFII는 위안화로 중국 증시에 직접 투자하는 RQFII와 달리 달러로 직접 투자할 수 있는 자격을 취득한 해외투자기관.